

칠엽수

과명 : 칠엽수과
학명 : *Aesculus turbinata*
병명 : Japanese Horse Chestnut,
Buckeye,
한명 : 七葉樹, 橡
일명 : とちのき



△ 칠엽수가로수

칠엽수는 일본이 원산지인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로 중부이남에서 식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치수 또는 가로수이다.

세계의 4대 가로수의 하나라고까지 하는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마로니에(marronnier)는 칠엽수의 프랑스 이름이며 열매가 밤을 닮고 떨어지는 뜻이다. 마로니에는 칠엽수와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은 잎 뒷면에 털이 많이 있고 칠엽수는 열매 겉이 매끈하고 마로니에는 가시가 있는 점이 다르다.

마로니에의 학명은 *Aesculus hippocastanum*이며 그리스 북부와 알바니아가 원산지이다. 나무의 이름은 그 나라의 문화로 부르고 있으나 영어권에서는 인간이 좋아하는 말의 밤으로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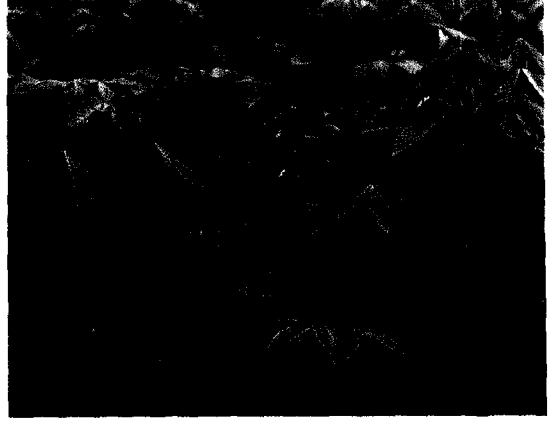
최 명 섭
임업연구원

1. 생태적 특성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20m, 직경 60cm에 달하고 중부이남의 토심이 깊은 비옥적윤지에 식재하고 있다. 어려서 그늘에 잘자라지만 커지면서 햇빛을 좋아한다. 뿌리가 직근성이어서 큰나무 이식이 곤란하고 토질은 비교적 가리지 않으나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자란다. 생장이 다소 빠르고 자연수형이 아름다우나 도시공해에 약하고 잎이 커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상처를 받아 잎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 칠엽수꽃



▲ 붉은칠엽수, 가시칠엽수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길며 손바닥을 편듯한 장상복엽으로 5~7개의 소엽은 긴타원형으로 중앙의 것이 가장 커서 길이 30cm, 넓이 12cm로 매우 크며 가운데 노랗게 단풍이 든다. 꽃은 잡성이고 6월에 원추화서로 분홍색을 띤 백색의 아름다운 꽃이 밀생한다. 화서의 길이가 15~25cm나 되어 꽃이 필 때에는 매우 아름다우며 열매는 황갈색이고 견과로서 밤을 닮았다. 열매는 8월에 5cm크기의 원추형으로 익으면 단단하다. 겉껍질이 두껍고 익으면 3개로 갈라지며 종자는 적갈색이다. 동아에는 송진같은 점액에 쌓여있어 겨울철 동해에도 견딘다.

유사종으로 잎의 뒷면에 털이 많고 열매의 겉에 가시가 있는 가시칠엽수 (*Aesculus hippocastanum*) 붉은꽃이 피는 붉은칠엽수 (*Aesculus carnea*) 왜성인 (*Aesculus paviahumilis*)가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수형이 웅장하기 때문에 가정정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나무이다. 큰 저택의 정원이나 공원, 학교 등에 식재하는 것이 어울린다.

수형이 단정하고 수관은 다소 영성한 편이나 잎이 커서 호방한 느낌을 주며 시원한 잎은 여름에 그늘을 지워 주어 녹음이 더할나이가 없이 좋다. 6월경 가지끝의 아름다운 꽃이 복수로 원추화서에 피어 관상가치를 한층 높여 준다. 수형이 웅대하고 수려하여 공공건물의 광장이나 공원 주택단지의 공원에 열식하거나 가로수 또는 녹음수로 식재하면 최적적이다.

4. 번식법

대부분 종자로 번식하며 여름에 익은 열매를 주어모아 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싹이 돌아난다. 종자가 마르면 발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운 즉시 젖은 모래와 섞어 땅속에 묻거나 바로 파종해야 한다. 직근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듬해 움길때 긴 뿌리를 잘라서 식재하여야 나무가 큰 다음에 이식할 때에도 활착이 잘된다.

5. 그 밖의 용도

수피는 약용으로 쓰이며 용재는 건축재, 기구재로 쓰이고 열매의 종자는 단백질과 전분이 많아서 탄닌을 제거한 후 식용할 수 있으며 6월에 피는 꽃은 꿀샘이 깊어서 밀원식물로 유명하다. 